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관련변인*

정진경[†]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양계민

한양대학교 민족학연구소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구성요인과 '성매매 의도를 예측하는' 변인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서울, 성남, 수원, 안양, 익산, 군산, 광주,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여성의 전화 지회를 통하여 남녀 총 181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신념, 성매매 경험, 성매매 의도, 성매매 후의 느낌, 성매매 동기, 자신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태도, 성매매에 대한 주위사람들의 태도, 남녀평등의식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태도는 요인분석 결과, 성매매의 필요성, 성매매의 정당성,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의 네 요인이 산출되었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남녀간에 차이를 보였고, 성매매 경험과도 관련이 있었다. 남성들의 성매매 의도는 주위의 규범보다는 자신의 태도가 중요한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거의 성매매 경험과 관계가 있었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와 관련된 편견적 태도가 낮고, 성매매 경험도 적고, 성매매 의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매매를 근절시키는 데 있어서 남녀평등의식의 고취가 중요한 요인이며 따라서 교육장면에서 응용해야 할 필요성이 강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주요 내용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성매매,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매매 의도, 남녀평등의식

* 본 연구는 한국여성전화연합에서 실시한 성매매 의식변화를 위한 대중의식토론회를 위하여 수행된 연구임

† 교신저자 : 정진경, (361-76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산 48번지,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전화 : (043)261-2192, E-mail : chungj@chungbuk.ac.kr

우리 사회는 법적으로 성매매¹⁾를 금지하고 있고, 성매매와 관련한 국제협약에 모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는 곳곳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성산업의 규모도 크다. 2001년 7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한국이 인신매매 3등급(최하위) 국가로 규정되어 있다. 법과 현실 사이의 이 심각한 괴리는 성매매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2001년에 여성부가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윤락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58.7%로, 국민의 41.3%가 우리나라가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성매매를 보는 시각은 보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시각과 여성주의의 시각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진다. 남성중심적 시각은 성매매가 필요악이며 인류사에 항상 존재했던 일이므로 인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고, ‘성욕을 못 참는 남자들 때문에 윤락가는 필요하

다’고 사회적 필요악으로서의 공창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다. 공창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게 함으로써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규제형태로 성매매를 비범죄화 하자는 것으로서 일부 유럽 국가의 체제를 받아들여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구획화를 실시하고, 성매매 여성들의 고객행위를 처벌하는 대신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여 허용하자는 의견이다(Gruen & Panichas, 1997). 2001년에 대전지법의 황○○판사가 윤락행위 알선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제시한 이유에는 ‘... 성의 매매는 사회의 필요악으로 일면의 긍정적인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동아일보, 2001. 8. 13.)’는 대목이 있는데, 이는 성매매를 보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그대로 드러내 준다.

이 시각에서 보면, 남성들은 본능적 성욕을 통제할 수 없고 따라서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살 수밖에 없으므로, 성매매는 양심의 가책이나 도덕적 낙인, 사회적 비난, 법적 처벌과는 상관 없는 일이 된다. 성을 사는 남성들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용을 베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남성들만이 아니고 여성들도 흔히 가지고 있다. 김양희(1995)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60% 정도가 ‘성본능은 남성이 더 강하다, 남성의 성충동은 참기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김시업(2000)은 청소년 성매매(‘원조교제’)를 한 성인들이 아무런 도덕적인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 없이 10대를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그러한 행위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비도덕적인 일이고 반드시 없애야 할 일이라는 데 대한 전체 사회구성원의 잠정적 합의와 법적인 규정과 규제가 아직 미비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한편, 성을 파는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1) 이 글에서는 ‘윤락, 매춘, 매매춘’ 등의 용어 대신 최근 여성계에서는 채택한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윤락(淪落)’이라는 용어는 성을 파는 여성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여성 개인의 도덕적 타락의 문제로 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매춘(賣春)’이라는 개념 역시 성을 파는 행위만을 부각시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운동에서는 ‘매매춘(賣買春)’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는데, 성을 사고 파는 양면을 다 본다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에서 ‘춘(春)’자는 성을 봄에 비유하여 남성의 성욕을 마치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상대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해서는 비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와서 ‘성매매’가 대안적 개념으로 제시되었다(김현선, 2001). 이는 성의 사고 팔기를 성산업화와 상품화의 맥락 속에서 보고, 여성의 인권에 대한 억압구조를 부각시키는 개념이다(김은실, 2001).

성을 팔고 그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므로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심지어는 유흥이나 소비를 위해, 또는 쉽게 돈을 벌려고 적극적으로 선택한 직업이라고도 생각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성매매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일종의 자기방어적 시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성희롱에 대한 한 연구(김정인, 최상진, 김영미, 2001)에서는 남성들이 성희롱에 대한 책임을 피해자 쪽에 귀인시키는 현상이 잠재적인 가해자일 수 있는 남성들의 자기방어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일에 종사하므로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게되면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심해진다. 사회적 오점 보유자에 대한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2001)의 연구에서는 12가지 종류(지체장애인, 작은키, 불임여성, 정신지체인, 약물중독자, 비만인, 이혼녀, 시청각장애인, 전과자, 무의탁노인, 고아, 윤락녀)의 오점 보유자 집단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측정한 결과, 대인간 신체적 거리감에서 가장 멀게 지각한 집단이 약물중독자에 이어 '윤락녀'였다. 전과자보다도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더 멀게 나타난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는 사회적 편견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편견의 대상이 되면 사회적 낙인이 내면화되기 쉽다. '이왕 버린 몸이니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생기고 결국 지속적으로 성매매 산업에 종사하게 되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성매매를 보는 또 하나의 시각은 여성주의의 시각으로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라고 규정한다. 성매매에 관한 국제 협약에서도 성매매 행위를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

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간 매개자 등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남성들의 성행동과 성의식은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개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문화적 관습으로 지속시키는 하나의 권력체계라고 볼 수 있다. 가부장적, 남성 중심적 사회가 남성에게 자신의 쾌락과 편의를 위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 것이다. 성매매자들의 성문화가 남성 놀이문화, 접대문화, 가부장적 성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이 시각을 뒷받침한다(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남성 중심적 성문화의 사회화는 남성을 성관계의 주체로 여성을 객체로 고착시켜 왜곡된 성문화를 당연시하게 한다(김양희, 1995; 김정인, 2000). 성매매를 비롯하여 성폭력이나 포르노, 가정폭력 등이 모두 실제로는 성의 문제라기보다 권력의 문제이다. 남성의 입장에서 여성을 규정하고 무시, 비하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심영희, 1995). 김혜원과 김명소(2001)도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으로 성윤리, 성가치의 하락, 성적 서비스 산업의 다양화, 물질만능주의와 소비심리의 팽배, 남성 중심의 성문화 등을 지적하였다(김혜원, 김명소, 2001).

여성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성매매 여성들은 성매매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고, 성매매의 주체는 포주와 중간 매개자와 같은 범죄자 및 성매매자다. 성매매의 과정에서 누가 실제로 이득을 얻고 있으며, 그 구조가 누구의 요구와 힘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가를 위주로 현상을 보는 것이다. 성매매의 주체들은 여성을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상품으로 거래하고, 이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

에 있을 수밖에 없다.

변화순과 황정임(1998)은 성매매의 실제적 원인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높은 무급종사자나 일시고용 비율, 큰 남녀간 임금차이 등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즉, '자발성의 형태를 띤 비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현재 검찰이 성매매 여성의 처벌기준으로 제안하고 있는 '자발성'과 '적극성'을 선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따른다.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보이나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선택의 방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김혜원, 김명소, 2001).

최근 여성단체에서 추진하는 성매매방지법안의 획기적인 측면 중의 하나는 '성매매된 자'와 '성매매행위자'를 구분하여, 성매매 여성을 형사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분적이지만 비범죄화의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호중, 2002). 이들을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성매매에 가담한 - 특히 강요에 의하지 않고 꽤 자발적이라는 외관을 가지고 가담한 - 여성의 비범죄화를 위하여 동원할 수 있는 논거는 성매매 여성의 자발성은 '구조적으로 제약된 자발성'이라는 점이다. 즉, '왜 성매매 여성들이 스스로 그곳에서 나가지 않는가'하는 점이다. 그들을 도덕적 문란자이고 '필요악'으로 보는 사회 담론, 포주나 알선업자와의 지배종속관계, 성매매의 사회적 구조 등의 제약을 고려하면 그들의 선택은 진정으로 자발적, 혹은 자율적인 것일 수 없다. 성매매의 공간은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간적 존엄성과 인격에 가해지는 폭력의 공간이자 성적 착취의 공간으로 보아야 한다. 알선매개자를 끼고 있거나 감금된 상태에서 행해지는 성매매는 성매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직접적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여

성은 자기 몸에 대한 지배권과 통제권을 거의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게 된다. 반면에 프리랜서형 성매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이 아니며, 자신의 '몸'과 '인격'에 대한 통제권을 역시 이양할 수밖에 없다(이호중, 2001).

몸의 권리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다(Tong, 1984). 자기결정권(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은 자신의 몸과 성, 욕구 등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재생산이나 낙태, 성폭력, 성희롱 등의 경우에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기 쉽다. 또 하나는 존경권(the right to personal respect)으로서 자신의 몸 및 욕구 등이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의 몸이 존경받을 권리, 비하 당하지 않을 권리로 침해당하기 쉽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포르노 등은 모두 여성에 대한 존경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고(심영희, 1995),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성매매에 유입된 후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최근의 한 연구(김현선, 2002)는 성매매 여성들의 삶에서 신체적·성적 폭력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응답자들의 96%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의 피해를 경험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매매가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며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고립되어서 성매매 여성들의 실상을 잘 알 수 없었던 과거에 비해, 군산 등의 성매매 업소 집결지 화재참사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인권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의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목적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매매 관련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성구매 경험 정도, 성구매를 하게 된 동기, 성구매 후 느낌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두 번째 목적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배경을 이루는 인식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주요 구성요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이 분석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성매매 행동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보는 것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며, 변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세 번째 목적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 의도, 행동 등이 남녀평등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남녀평등의식이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 채택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로 정의할 수 있다(김양희, 정경아, 1999). 이러한 태도는 남녀의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광범위하게 정의한 것으로 성역할과 관계되는 많은 분야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한 예로 성폭행의 심리적 요인에 대한 한 연구(이석재, 최상진, 2001)는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성격적 특성을 남성적으로 보는 사람이 성폭행이 일어난 책임이 여자에게 있다든가, 성폭행 피해자들은 과거 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자가 무의식적으로 강간당하고 싶어한다는 등의 강간에 대한 통념을 더 수용하였는데, 그런 남성일수록 성폭행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남녀평등의식은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성매매를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적 측면에서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 관련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목적은 성매매 의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행동의도를 개인의 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으로 예측하는 이성적 행동이론(Fishbein & Ajzen, 1975; Ajzen & Fishbein, 1980)의 모델을 적용하여 이 두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성매매 의도가 개인의 성매매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의해서 주로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규범적 기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각 구성요인들이 성매매 의도와 어느 정도의 관계가 있는지도 살펴보았다.

방 법

조사대상자

서울, 성남, 수원, 안양, 익산, 군산, 광주, 대구, 창원, 부산 등 전국 10개 지역에서 여성의 전화 회화를 통하여 각 지역에서 150명에서 200명 정도씩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남녀 총 1815명을 조사하였고, 2003년 7월부터 2003년 9월까지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10분-15분 정도였다.

조사도구

설문내용은 크게 성매매에 대한 태도, 남녀평등의식, 그리고 성매매 행동과 의도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문항 27개는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성

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는데, 성매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최근의 연구보고서들(경기도 성매매피해여성 지원센터, 2001; 여성부, 2001; 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한국여성의전화연합, 2002)에서 연구자가 선별하였고, 그 외에도 연구자가 제작한 문항을 몇 개 포함시켰다. 그 내용으로는 ‘성매매는 성을 팔아서 돈을 주고 버는 것이므로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성매매는 혼자 사는 남자들의 성욕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는 등의 성매매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성매매 여성들은 속아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고 자포자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를 얼마든지 그 만들 수 있다’,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는 등의 성매매 여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 본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85$ 였다.

남녀평등의식의 측정은 한국여성개발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김양희, 정경아, 1999)를 기초로 하였다. 원래의 검사는 가정, 교육, 직업, 사회문화 등 네 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조사에 사용하기에는 너무 길어서, 본 조사에서는 가정생활 영역과 사회문화생활 영역에서 12개 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12개 문항의 전체 신뢰도 계수 $\alpha = .86$ 이었다.

행동은 과거 성매매 경험, 앞으로 성매매를 할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의도, 성매매에 대한 준거집단의 규범에 대한 인식,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 성매매 후의 느낌 등의 내용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외에 성별, 생년월일, 교육, 혼인상태, 직업, 월평균 수입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결 과

조사대상의 연령은 15세에서 78세까지로 30세 이하가 650명, 30대가 556명, 40대가 354명, 50대가 119명, 61세 이상이 54명이었다. 50세 이하가 80%로서 응답자의 연령층이 대부분 청년, 중년층이고 노인층의 응답자가 적었음을 볼 수 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822명(45.3%) 여성이 939명(51.7%)이었고, 우리 사회의 평균적 교육 수준 분포에 비교하여 고학력층의 비율이 약간 높았다. 대졸이 888명으로 가장 많았고(48.9%), 고졸이 551명(30.4%), 중졸이 102명(5.6%) 등이었다.

조사대상자들 중 현재 결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55.6%, 별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결혼을 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배우자와 동거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4.8%, 미혼이 35.7%였다. 직업은 전문직이나 자유직이 326명(18%)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학생이 302명(16.6%)으로 다음으로 많았으며 전업주부(12.1), 행정, 사무직(10.8%), 판매 및 서비스직(9.6%), 자영업(8.5%), 생산기술직(7%) 등의 순이었다.

성매매 경험, 동기 및 느낌

응답자들이 성매매 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까지 성매매 경험이 얼마나 됩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48.4%로 거의 반 정도가 성매매를 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여자는 95%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성매매의 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여성의 성매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매매에 대한 이후의 분석은 남성의 자료만 분석하였다. 여성의 경우 표 1에

표 1. 성매매 경험의 빈도 및 퍼센트

	남성	여성	합계	χ^2
경험 없다	424 (51.6)	892 (95.0)	1316 (74.7)	
경험 있다	398 (48.4)	47 (5.0)	445 (25.3)	437.45***
합계	822 (100)	939 (100)	1761 (100)	

*** $p < .001$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의 단 5%만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했기 때문에 성매매 경험과 관련된 분석을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결과를 왜곡할 가능성 때문이다. 성매매 경험의 유무에 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성매매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혀 없는 남성은 51.6%였고, 그 외에 3회 이하가 19.7%, 4회에서 6회가 6.8%, 7회에서 9회가 4.1%, 10회 이상이 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경험자들의 대부분이 3회 이하와 10회 이상에 몰려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즉, 성매매 경험 횟수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거나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 두 번에 그치는 사람과 상습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 경험이 단순히 연령에 따라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특성에 따라 집단으로 분류되는 차이임을 보여주고 있

다.

어떤 동기에서 성매매를 하게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매매를 하게된 동기는 어떤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하고, 보기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중복응답을 허용하였으므로 카이자승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표 2는 연령별로 분석한 것으로, 전 연령층에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가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성매매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경우 성적 욕구의 해소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많았고(22%), 30대, 40대, 50대 모두 호기심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15% 이상 되었는데, 이는 성매매가 성욕의 해소를 위해

표 2. 성매매 동기의 연령별 빈도 및 퍼센트 (중복응답이므로 세로 퍼센트가 적용됨, 남성)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술자리에서 어울리다	46 (36.2)	129 (43.1)	70 (49.3)	17 (41.5)	11 (34.4)
성적욕구의 해소를 위해	28 (22.0)	40 (13.4)	13 (9.2)	6 (14.6)	3 (9.4)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6 (4.7)	17 (5.7)	14 (9.9)	4 (9.8)	8 (25.0)
호기심에	22 (17.3)	46 (15.4)	22 (15.5)	7 (17.1)	2 (6.3)
동료들의 압력	13 (10.2)	25 (8.4)	3 (2.1)	2 (4.9)	4 (12.5)
접대관행상	12 (9.4)	42 (14.0)	20 (14.1)	5 (12.2)	4 (12.5)

서, 또는 성 자체에 대한 호기심에서라기보다는 성매매 경험 자체에 대한 호기심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30대와 40대는 접대 관행상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14%정도를 차지하여 술자리와 함께 마치 남성들이 오락을 같이 즐기듯이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성매매를 하게 된 동기를 결혼상태로 살펴본 것을 보면, 모든 집단에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미혼의 경우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서 성매매를 했다는 비율이 기혼에 비해 약간 높기는 했으나, 이 역시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성매매를 했다는 응답에 비하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성매매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만족스러웠다고 응답한 비율은 51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대부분이 별 느낌이 없었다거나 기대와 달라서 실망했다고 응답하였으며,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30-60대는 특히 성병에 걸릴까봐 두려웠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죄책감을 느낀다는 비율은 17%에 불과해서 성매매 행위 자체는 안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매우 적음을 보여주었다. 성매매 후 느낌에 대한 응답 역시 중복응답을 허용하였기에 카이제곱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결혼상태에 따라 성매매 경험의 느낌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역시 결혼을 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전체의 20%만이 죄책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나머지 80%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성매매를 하고서도 죄책감을 느끼기보다는 성병에 대한 걱정, 성적인 만족도와 느낌 등 자신의 욕구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기혼자들은 성병에 걸릴까 두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미혼자들은 별 느낌이 없었다거나 기대와 달라서 실망했다는 응답이 제일 많았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사람들이 성매매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차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남녀 응답자의 자료를 사용하여 성매매 태도 문항들을 요인분석 하였다. 분석결과 성매매의 정당성에 관한 요인, 성매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요인,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지에 관한 요인,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요인 등 네 가지 요인이 산출되었다. 각 요인이 어떤 문항들로 구성되었는지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각 문항은 남성중심적 고정관념이 높은 쪽이 높

표 3. 성매매의 느낌에 대한 연령대별 빈도 및 퍼센트 (중복응답이므로 세로 퍼센트가 적용됨, 남성)

	30세 이하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 이상
죄책감을 느꼈다	13 (11.6)	53 (21.2)	16 (12.4)	8 (23.5)	6 (21.4)
성병이 걸릴까 두려웠다	20 (17.9)	61 (24.4)	45 (34.9)	12 (35.3)	11 (39.3)
만족스러웠다	12 (10.7)	14 (5.6)	4 (3.1)	6 (17.6)	5 (17.9)
기대와 달라서 실망했다	32 (28.6)	49 (19.6)	30 (23.3)	4 (11.8)	3 (10.7)
별 느낌이 없었다	35 (31.3)	73 (29.2)	34 (26.4)	4 (11.8)	3 (10.7)

표 4. 성매매에 관한 태도의 주요 차원: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			
	정당성	필요성	피해자	자발성
성매매는 성을 팔아서 돈을 주고 버는 것이므로 직업으로 인정해야 한다	.712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	.692			
성매매는 범죄이다	.675			
성매매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이다	.675			
성매매는 구매자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616			
성매매를 알선하는 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578			
성매매자들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382			
성매매가 없으면 강간이 증가할 것이다		.738		
성매매는 혼자 사는 남자들의 성욕해소를 위해 필요하다		.683		
남자의 성욕은 여자보다 통제하기 어렵다		.678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640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줄어들 것이다		.594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		.552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			.637	
성매매 여성들은 속아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			.631	
성매매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하고 자포자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520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 사회 성문화의 피해자이다			.499	
성매매 여성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그 직업을 선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492	
성매매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를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				.690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다				.595
성매매 여성들은 대체로 성욕이 높은 사람들이다				.556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강간은 성립될 수 없다				.499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베리맥스. 전체 설명변량: 47.18%

은 점수가 되도록 코딩하였고, 가장 높은 부하량을 보인 요인에 분류하였다.

성매매에 관한 태도를 성별로 검증한 결과가 표 5에 있다. 표에 나온 숫자는 요인별로 문항들의 평균을 낸 것이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성매

매는 정당하며 필요하다고 보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표 5에 나타나듯이 모든 요인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었다.

표 5. 성매매에 관한 태도의 하위 요인별 차이검증: 성별 평균 및 표준편차

	남성	여성	합계	t
자발성	2.87 (.56)	2.69 (.63)	2.78 (.60)	6.39***
피해자	3.20 (.51)	2.99 (.56)	3.09 (.54)	8.19***
정당성	2.59 (.67)	2.11 (.60)	2.34 (.68)	15.59***
필요성	2.89 (.68)	2.40 (.75)	2.63 (.76)	14.02***

*** $p < .001$

가장 고정관념이 심하게 나온 요인은 성매매 여성들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태도였다. 남성들이 더 심했지만 여성들도 고정관념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하여 성매매가 정당하다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았다. 특히 여성들은 성매매가 정당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 견해가 더 많았고, 이 두 가지 분야에서 남녀간의 태도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성매매 경험에 따라서 다른지를 살펴본 결과(표 6), 경험이 10회 이상 되는 상습적인 성매매자들이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 모든 요인에서 성매매에 대한 고정관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는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

적 고정관념적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더 성매매를 많이 함을 보여주며,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성매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네 가지 요인과 성매매 경험간의 상관을 구해본 결과(표 7), 성매매 경험이 많을수록 성매매에 대해 편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특히 상관이 높은 요인이 성매매가 필요한 제도라고 여기는 태도($r = .44$)였다.

남녀평등의식과의 연관성

남녀평등의식 검사의 문항들의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성평등의식 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을 검사해본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남녀평등의식을 가지고 있

표 6. 성매매에 관한 태도의 하위요인별 차이검증: 성매매 경험에 따른 평균 및 표준편차(남성)

	성매매 경험 무	성매매 경험 10회 이상	합계	t
자발성	2.81 (.56)	3.00 (.55)	2.87 (.56)	-3.31***
피해자	3.13 (.51)	3.39 (.53)	3.20 (.51)	-4.72***
정당성	2.39 (.65)	3.01 (.59)	2.59 (.67)	-9.01***
필요성	2.65 (.64)	3.48 (.53)	2.89 (.68)	-12.43***

*** $p < .001$

표 7.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성매매 경험간의 상관(남성)

	자발성	피해자	정당성	필요성
성매매 경험	.14**	.18**	.35**	.44**

** $p < .01$

는 것으로 나타났다($3.83 > 3.26$, $t = -22.04$, $p < .001$). 젊을수록 평등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세대간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F = 44.84$, $p < .001$).

결혼 상태에 따른 남녀평등의식의 차이를 보면, 미혼자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혼자 집단이 그 다음이었으며 이혼, 사별, 별거집단이 가장 낮은 수준의 평등의식을 보였다($F = 37.72$, $p < .001$). 이러한 차이는 결혼상태에 따른 차이이기도 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로 인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미혼의 경우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많고 이혼, 사별, 별거집단은 노인층이

많기 때문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성매매 경험에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남성의 남녀평등의식 점수 상에서 상위 25%와 하위 25%를 각각 남녀평등의식 고집단과 저집단으로 분류하고, 고저집단에 따른 성매매 경험을 분석하였다(표 8). 그 결과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현격하게 성매매 경험이 없다는 결과가 주목할만 하다. 이는 전체 남성 응답자의 51.6%가 성매매 경험이 없다고 응

표 8. 남녀평등의식의 고저에 따른 성매매 경험자의 빈도 및 퍼센트(남성)

	남녀평등의식 저	남녀평등의식 고	합계	χ^2
경험 무	107 (50.5)	55 (93.2)	162 (59.8)	35.08***
경험 유	105 (49.5)	4 (6.8)	109 (40.2)	
합계	212 (100.0)	59 (100.0)	271 (100.0)	

*** $p < .001$

표 9. 남녀평등의식의 고저에 따른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차이검증: 평균 및 표준편차(남성)

	남녀평등의식 저	남녀평등의식 고	합계	t
자발성	3.13 (.51)	2.36 (.65)	2.72 (.70)	17.39***
피해자	3.20 (.56)	2.91 (.61)	3.05 (.61)	6.62***
정당성	2.72 (.63)	1.88 (.60)	2.27 (.74)	18.44***
필요성	3.17 (.66)	1.95 (.72)	2.52 (.92)	23.82***

*** $p < .001$

표 10. 남녀평등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상관관계(남성)

	자발성	피해자	정당성	필요성
남녀평등의식	-.43**	-.11**	-.39**	-.55**

** $p < .01$

답한 것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남녀평등의식과 성매매 행동의 상관관계는 $-.31(p < .01)$ 이었다. 이는 남녀평등의식 정도와 성매매 행동 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여성을 평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됨을 보여준다.

남녀평등의식의 고저에 따라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표 9), 자발성, 피해자, 정당성, 필요성 네 가지 하위요인에서 모두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이 고정관념을 덜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적었고,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라고 보았으며, 성매매가 정당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남녀평등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관계를 상관계수로 살펴보면(표 10),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에 대한 편견적 태도가 낮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남녀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성매매 산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가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비록 통계적으로 의의는 있었지만 성매매 종사자들이 피해자라고 보는 시각은 다른 태도변인보다는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의도

남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성매매를 하

게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한 결과,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7%밖에 되지 않았고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다’가 32.7%, ‘잘 모르겠다’가 10.6%,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가 18.1%, ‘기회만 된다면 할 것이다’가 1.9%로 나타났다. 결코 하지 않겠다고 제외한 나머지 67.3%는 성매매 행동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의 의식을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성매매 의도가 다른지를 분석하였다. 우선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0세 이하에서 가장 많아서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해 약간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6.35, p < .05$). 이는 젊은 층의 경우 아직 사회생활을 적게 하여 사회적인 압력이나 접대문화를 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젊은 사람일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성매매 의도를 결혼상태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혼자들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1.3% 밖에 되지 않았다.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향후 성매매를 할 의도를 분석해본 결과(표 11),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

표 11. 성매매 경험에 따른 성매매 의도의 빈도 및 퍼센트(남성)

	경험 무	경험 유	합계	χ^2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209 (30.5)	54 (14.1)	263 (32.7)	170.76***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다	133 (31.4)	163 (42.7)	296 (36.8)	
잘 모르겠다	54 (12.8)	31 (8.1)	85 (10.6)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26 (6.1)	120 (31.4)	146 (18.1)	
기회만 된다면 할 것이다	1 (.2)	14 (3.7)	15 (1.9)	
합계	423 (100)	382 (100)	805 (100)	

*** $p < .001$

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낮아서 차이를 보였다.

성매매 경험과 향후 성매매 의도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이 $r = .50(p < .01)$, Spearman의 상관은 $\rho = .49(p < .01)$ 였다.

성매매 의도를 성평등의식의 고저에 따라 살펴본 결과(표 12), 역시 성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이 성매매 의도를 높게 나타내었는데,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9%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은 68.6%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남녀평등의식의 고취가 성매매 근절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남성들 중에서도 31.4%가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성매매가 폭넓게 행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자신의 신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의도와 성매매에 대한 태도요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표 13), 성매매 의도가 높을수록 성매매와 관련된 편견적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매매가 정당하다고 보는 시각과 (.39)필요하다고 보는 시각(.39)이 강할수록 성매매 의도도 강한 것으로 나

표 12. 남녀평등의식의 고저에 따른 성매매 의도의 빈도 및 퍼센트(남성)

	남녀평등의식 저	남녀평등의식 고	합계	χ^2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	61 (22.9)	48 (68.6)	109 (32.4)	64.23***
가급적 하지 않을 것이다	89 (33.5)	21 (30.0)	110 (32.7)	
잘 모르겠다	33 (12.4)	1 (1.4)	34 (10.1)	
상황에 따라 할 수도 있다	75 (28.2)	0 (0.0)	75 (22.3)	
기회만 되면 할 것이다	8 (.0)	0 (0.0)	8 (2.4)	
합계	266 (100.0)	70 (100.0)	336 (100.0)	

*** $p < .001$

표 13. 성매매 의도와 성매매에 대한 태도요인의 상관관계(남성)

	자발성	피해자	정당성	필요성
성매매 의도	.18**	.13**	.39**	.39**

** $p < .01$

타났다.

자신의 태도와 주관적 사회규범이 성매매 의도를 얼마나 예측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jzen과 Fishbein의 이성적 행위이론(1980)에 따라 성매매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성매매에 대한 자신의 태도 및 주관적 사회규범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태도는 본인이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나쁘다-좋다, 바보같다-현명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바람직하다. 해롭다-이롭다’의 문항들에 표시하게 하여 평균을 내었고, 주관적 사회규범은 ‘가족, 친구, 동료 등의 가까운 사람이 내가 성매매 하는 것에 대해 해야한다고 생각한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의 양극 차원 중 어느 쪽에 가까운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의 태도가 의도를 설명하는 베타값이 .50으로 상당히 높았고 주관적 규범은 -.09로 낮은 편이었다(표 14).

표 14.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가까운 사람)이 성매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회귀분석(남성)

독립변인	β 값	R^2
자신의 태도	.50***	.30***
가까운 사람의 태도	-.09*	

* $p < .05$, *** $p < .001$

논 의

성매매 경험 및 동기

남성 응답자의 48.4%가 성매매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성매매가 사회에서 남성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것을 드러내었다. 반면에 여성은 성매매 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5%에 불과하여, 성매매는 거의 전적으로 남성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 30대 이하의 젊은 남성들 중에도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이 31.4%로 나타나, 어린 나이에서부터 성매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매매 경험자들의 대부분이 3회 이하와 10회 이상에 몰려있는 것이 주목할만하다. 한두 번 정도 성매매를 하게 되었지만 그에 그치는 사람들과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로 분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매매 동기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성매매를 하게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전 연령층에서 가장 많았다(42.6%). 이는 ‘접대 관행상’ 성매매를 하였다는(12.9%) 응답과 합치면 55%에 달하여, 술자리의 남성문화와 성매매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술자리와 접대의 남성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성매매를 줄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임을 시사한다.

성매매 후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물어본 결과, 죄책감을 느꼈다는 사람은 17.4%에 불과했다. 성매매가 범법행위라는 것에 비추어볼 때, 이는 놀랍도록 낮은 비율이다. 이 결과는 성매매를 하는

남성들이 자신의 행위가 불법이고 비윤리적이라는 인식을 별로 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나갈 때 성매매의 불법성과 비윤리성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다루어야함을 시사한다. 기혼자들 중에서도 성매매 후 죄책감을 느낀 사람은 20.1% 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불법성, 비윤리성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더불어, 결혼한 남성들이 정조의 의무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는 의미도 시사한다. 만약 배우자가, 즉 여성이 성매매를 했다면 자신의 경우처럼 책임을 묻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후의 느낌으로는 ‘성병에 걸릴까 두려웠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는데(26.9%), 기혼자들에게서는 그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29.4%). 배우자에게 성병을 옮기거나 들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성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의식은 일반적으로 낮고, 혹시 자신에게 일어날지도 모르는 부정적 결과에는 관심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성매매 후 만족스러웠다는 응답은 매우 낮아서,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보다는 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또는 호기심에서 이루어지지만, 막상 성매매 후에는 성병에 대한 두려움 또는 실망감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앞으로 성매매를 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남성의 32.7%만이 결코 하지 않겠다고 응답하였다. 성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 30.5%만이 결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성매매를 결코 하지 않겠다는 32.7%를 제외하면, 나머지 67.3%에 달하는 남성들은 자신이 성매매 행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는 우리사회에서 남성들간에

성매매 행동이 얼마나 보편적으로 용인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30세 이하의 젊은 세대가 결코 하지 않겠다고 응답이 다른 세대에 비해 약간 많은 편이어서(37.2%), 남성문화에 조금씩이나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아직 접대문화를 비롯한 남성 성문화에 노출될 기회가 적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성매매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은 성매매의 정당성에 관한 요인, 성매매의 사회적 필요성에 대한 요인,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에 관한 요인,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다고 보는지에 관한 요인 등 네 가지로 밝혀졌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각 요인은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하여 성매매에 대한 남성중심적 고정관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즉 성매매가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로 보는 시각이 특히 약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남성들의 인식이 더 낮았지만, 여성들도 매우 낮은 인식을 보였다. 즉, 성매매 여성들을 피해자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론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성매매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대부분이 성매매에 유입된 후 심각한 폭력을 경험하고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포주 등의 감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그만둘 수 없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앞으로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피해의 실상

을 대중들에게 알려서 태도를 바꾸어 나가는 것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에 비하여 성매매가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그렇다고 보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강하였다. 특히 여성들은 성매매가 정당하지도 못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태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성매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여 고정관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성매매가 정당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보는 견해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매매를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이 성매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태도와 성매매 행동과의 관련성을 나타내 주고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성매매 행동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평등 의식과의 연관성

남녀평등 의식에서도 성차는 뚜렷이 드러나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하여 남녀평등의식이 높았다. 이는 성역할이나 남녀평등의식을 분석하는 많은 선행연구에서(김양희, 1991; 정진경, 2002; Campbell 등, 1997; Helmreich, 1981 등) 여성의 태도가 남성에 비해 더 진보적, 평등지향적이었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연령에서도 예측했던 바와 같이 젊은 층일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았다. 이는 앞으로 젊은 층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행동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를 미약하게나마 걸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남성들을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성매매 경험정도

를 분석해본 결과, 두 집단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남성들은 94%가 성매매 경험이 없는 반면,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은 성매매 경험이 없는 사람이 48.4%에 불과하였다.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일수록 성매매를 많이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한 이 결과는, 성매매가 남성문화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력행사이며 인권침해라는 시각에 정당성을 부여해준다. 즉, 여성을 평등한 인권을 가진 존재로 본다면 성매매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성매매에 대한 태도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정당하거나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며,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고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를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이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높고, 성매매 경험도 많으며, 앞으로 성매매를 할 의도도 높다는 일련의 결과들은,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울러 이 결과는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되는 성차별적 행위라는 논의를 뒷받침한다.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존경받을 권리를 무시하고 비하하는 인식에서 성매매가 비롯되는 것이다.

성매매 의도

남성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성매매를 하게 될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질문하였을 때,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7%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67.3%는 성매매 행동을 문제로 생각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남성들의 의식을 나타내었다. 기혼자들의 응답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남성들이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 관념이 매우 희박함을 나타내었다.

성매매를 해본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향후 성매매를 할 의도에 차이가 있었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결코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낮았다. 이는 성매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성매매를 다시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 층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바로 잡아서 성매매에 아예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들이 결과는 보여준다.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집단에 비해 남녀평등의식이 낮은 집단이 성매매 의도를 세 배 이상 높게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남녀평등의식의 고취가 성매매 근절의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녀평등의식이 높은 남성들 중에서도 31.4%가 급적 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성매매가 폭넓게 행해지는 우리 사회에서 이들이 자신의 신조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성매매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신이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가까운 사람들의 규범적 기대보다 더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자신이 성매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지나 정서들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보다 의도의 결정에 더 중요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규범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온 이유를 살펴보면, 응답자는 대부분 배우자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의 가까운 사람들이 자기가 성매매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지각하고 있으므로 이 변인의 변량이 크지 않은 것이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술자리 등에서 같이 성매매 업소로 몰려가는 경우라든지 군 입대나 휴가 시와 같이 주변의 기대가 성매매로 밀고 있는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고려하게 한다면, 이 결과는 다소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변화 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제언

이 연구는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인식의 주요 내용들을 밝혀내고, 이들이 성매매 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남녀평등의식과 성매매에 대한 태도, 행동, 의도간의 밀접한 관계를 증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과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태도변화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그 교육의 대상은 일반 대중과 관련 공무원, 그리고 성매매자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양한 교육기회를 마련하여 일반 대중이 성매매가 범죄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론에서도 보았듯이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절반 정도에 달하고 있다.

성매매를 퇴치시키는 가장 궁극적인 방안은 역시 태도의 변화이다. 대중들에게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새롭게 가지게 하고, 더 나아가 올바른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확산시켜야 한다. 외국의 많은 경우와 비교하여 우리 사회에서 특

히 성매매를 당연시하고 성산업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대상은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모든 연령의 남성이며, 남자 중고등학교, 군대,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 공무원 연수 및 기업의 사원 연수 등의 기회를 모두 활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TV 등의 대중매체를 활용한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젊은 층일수록 성매매에 대한 편견이 덜하고, 성매매 의도도 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성매매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 점에서 아직 생각이 굳지 않고 교육의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초기부터 바로 설 수 있도록 중고등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교육을 적은 시간이라도 정규 커리큘럼에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우선은 특강 형식으로라도 시작하는 등의 학교 성교육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군대는 젊은 남성들을 모아 놓고 남성성을 극대화시키는 현장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과 비하를 배우고, 성매매에 대한 그릇된 태도를 습득하기도 한다. 군대에서 휴가를 내보낼 때 피임도구를 준다는 것은 유명한 일이다. 이는 성매매를 당연시할 뿐 아니라 조장하는 일로서 국가의 공적인 기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군대에서는 피임도구를 주기보다 올바른 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문제에 대한 군지도부의 인식만 있다면 군대, 예비군, 민방위 등의 현장에서 쉽게 대규모로 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성매매의 주요 동기 중 하나가 남성문화에 대한 동조이므로 군대에서의 올바른 성교육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술자리나 접대 상황에서 성매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도 남성문화 안에서의 동조가 성매매에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준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원연수, 공무원연수 등 직장에서의 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직장 근무가 끝난 이후의 남성들의 술자리 문화, 접대문화는 사회적으로 뒷거래, 뇌물수수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성매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남자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그럴 수도 있다,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다, 접대 잘 하는 것도 능력이다'라는 주장에 동조하게 되고 성매매에 대해서 허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다.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은 이러한 문화를 변화시켜나가기에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미 다수의 회사들에서 조금씩이라도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그 내용에 성매매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성매매의 문제를 인식시켜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전달되는 파급효과와 여론조성 효과를 고려하면 대중매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군산 화재참사 사건 등의 계기가 있을 때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우리 사회의 성매매 실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그에 대한 태도를 바로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을 촉구하고 협조하는 시민사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성매매가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는 만연되어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데 있다. 그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과 공무원이 성매매를 묵인하거나, 심지어 범죄자들과 유착되어 있다면 법이 있어도 실효를 볼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

저한 교육을 통하여 성매매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바로 하고, 철저한 단속과 처벌을 시행하도록 해야한다. 그 교육의 내용에는 수사지침을 비롯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제로 법이 효과를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자에 대한 처벌이나 강제교육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성매매를 감소시키는데 큰 효과를 낸다. 프랑스와 스웨덴에서는 남성이 성매매를 찾아가는 것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성매매 업소 밀집지역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상습적으로 이 지역을 찾는 남성에게는 강제적으로 심리치료까지 받도록 하고 있다(Pettersson, 1999). 캐나다 등에서도 성매매를 찾아갔다가 적발된 남성을 대상으로 400달러의 벌금을 포함한 강제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지역 주민, 관련공무원, 성매매 피해여성 등이 강사로 참여하여, 성산업이 지역사회와 여성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실시한다. 징역형의 처벌대신에 벌금과 일정기간의 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이 프로그램은, 교육을 수료한 남성 중에서 다시 성매매 업소를 찾은 비율이 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Lowman, 1985). 미국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남성들의 구매 행위에 대한 재범방지 교육 및 프로그램 등도 성매매를 감소시키는 좋은 모델로 이용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성매매자들에 강제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재범을 방지하여야 하고, 사회적 각성의 계기로도 삼아야 할 것이다. 앞의 결과에서도 보듯이, 성매매가 비윤리적이며 폭력적인 인권침해고 범죄라는 의식이 남성들에게 매우 낮은 우리 사회의 현황을 고려할 때, 이는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태도변화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본 연구의 결과는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구성하는 주요 요인들을 밝혀내고, 각 요인마다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신념의 내용과 강도를 밝혀내었다. 그 결과에 근거하여 성매매에 대한 태도변화 교육 프로그램에서 특히 강조하여야 할 내용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의 불법성 및 부당성을 알린다. 우리나라의 현행법과 국제 협약에서 성매매 행위를 범죄이며 여성인권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성매매는 범죄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것을 교육에서 강조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는 엄연히 돈을 주고받고 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하다’든지 ‘성매매는 구매자의 선택이므로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등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 성매매가 범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가 성매매와 인신매매의 범죄자들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성매매의 사회적 필요성’이 허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성매매는 필요악’이라든지 ‘남자의 성욕은 통제하기 어렵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성매매를 할 수 있다’든지 ‘성매매를 합법화하면 강간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 남성의 편의를 위해 성매매를 합법화하지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남성들의 성문화는 인간의 욕구를 해소하는 자연스러운 개별적 행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남성중심적 문화의 권력 체계로 작용하고 있다. 그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허구적 신념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다. 평등한 사회에서

는 남성들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여성의 성을 살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성욕을 통제할 수 있고,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 현재의 한국 남성들의 성매매는 남성놀이문화, 접대문화, 가부장적 성문화, 성상품화, 과소비 및 향락문화와 관련되어 있다는(변화순과 황정임, 1998) 것,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동조는 인격의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킨다. 본 조사의 결과는 응답자들이 ‘성매매 여성들은 쉽게 돈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선택한 것’이라든지 ‘성매매 여성들이 마음만 먹으면 성매매를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연구 결과(김현선, 2002)는 성매매 여성들이 어떠한 동기로 성매매에 유입되었는지 간에 성매매의 과정에서 구타, 강간, 협박 등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으며, 많은 경우 감금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 변화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며, 보호하고 재활을 위해 지원해야 할 대상이지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성매매의 실제적 원인은 여성의 열악한 경제활동 여건으로, 성매매 여성들의 선택은 표면적으로 볼 때 자발적으로 보여도 내면적으로는 그러한 선택의 방향으로 내몰리는 ‘자발성의 형태를 띤 비자발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알린다. 본 조사의 결과는 아직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성매매 여성들은 우리 사회 성문화의 피해자라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사람만 처벌해야 한다’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제로 성매매 여성들이 당하고 있는 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의 실태는 심각하다. 성매매에 유입된 후 여성들은 성매매자 외에도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등에 의해 극심한 신체적, 성적 폭력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다. 최근의 연구(김현선, 2002)를 보면, 이러한 폭력으로 인해 이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심각도는(59.37) 베트남 참전군인의 심각도(50.6)나 걸프 참전군인의 심각도(34.8), 아동기 성적학대 경험을 가진 성인 여성의 심각도(30.6), 신체적·성적 학대의 경험을 가진 성인여성의 심각도(36.8)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성매매와 관련한 외상들을 떠올릴 때 매우 두려워했고 무력감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자기학대나 우울증, 인격장애, 경계선 장애, 정신분열등과 같은 중복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도 다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행위의 주체로 보고 성매매 범죄의 책임과 원인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보여준다. 성매매 여성이 ‘피해자’이며, 가부장제 사회의 남성중심적 성문화로 인해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을 교육에서 인식시켜야 한다. 성매매의 이면에 감추어져 있는, 인신매매와 폭력, 감금으로 얼룩진 그 피해의 실상이 널리 알려지면, 성매매에 대한 태도는 변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이와 같은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감과 아울러 남녀평등의식을 꾸준히 증진시켜 나가는 노력도 필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남녀평등의식이 성매매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을 보여주었다. 남녀평등 교육을 확산시키는 꾸준한 노력은 장기적으로 성매매 산업을 축소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성매매방지법의 제정도 앞당겨야 한다. 태도의 변화와 법의 제정은 상호 작용한다. 태도의 변화는 그에 상응하는 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법의 제정은 태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규정과 더불어 성매매자와 알선자의 엄한 처벌을 명시하는 법이 하루 빨리 제정되어야 성매매에 대한 국민의 태도변화를 앞당겨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를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조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는, 전국에서 대표적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국 10개 지역에서 표본추출을 하였지만, 강원, 충청, 제주 지역이 빠졌고,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도 성별, 연령별로 그 지역의 인구구성에 비례하는 대표적 표본을 추출한 것은 아니므로, 본 조사의 결과가 엄격한 의미에서는 전국 평균이라고 말할 수 없다. 둘째는, 한국남녀평등의식검사를 축약하여 사용한 것이다. 본 조사의 설문지는 문항수가 워낙 많아서 원래의 검사 중 일부의 문항들만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신뢰도는 .86으로 만족스러우나 남녀평등의식의 모든 분야를 세밀하게는 측정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성매매 관련 연구들이 성매매 현황과 그에 대한 태도의 평면적 분석에 그친 데 비하여, 성매매에 대한 태도와 의도 및 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아울러 이들이 전반적인 남녀평등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밝혀내었다는 점에서 이론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성매매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성매매에 대한 태도의 어떤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는가를 제시해 주고, 또한 전반적인 남녀평등의식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성매매의 근절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김미령 (2002). 현장활동가가 본 성매매 실태와 가능한 대안들. 한국 여성의 전화연합.
- 김시업 (2000). 청소년 매매춘과 원조고체의 사회-심리적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5(2), 15-28.
- 김애란, 김현선, 정신목 (2001). 성매매특별방지법 제정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자료집, 새움터, 80쪽.
- 김양희 (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여성연구」, 9(2), 111-149.
- 김양희 (1995). 성희롱: 경험과 인식, 그리고 정책 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2, 17-32.
- 김양희, 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사용설명서.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50-4.
- 김은실 (2001).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 김정인 (2000). 성희롱 행동의 이해와 실제: 심리학적 접근.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인, 최상진, 김영미 (2001). 성희롱 문제 지각에서 성차 및 성역할 태도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3), 1-22.
- 김현선 (2001).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2001. 10.
- 김현선 (200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방안. 전라북도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

- 서. 전북여성단체연합 부설 성매매여성 인권 지원센터.
- 김현선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김명소 (2001). 청소년 매매춘의 현황과 악, 원인규명 및 예방책 제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1), 43-59.
- 동아일보 (2001. 8, 13). 성매매 필요악 결정 파장.
- 배금자 (2002). 대명동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중합준비서면.
- 변화순, 황정임 (1998). 산업형 매매춘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새움터 (2002).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대안 연구.
- 송관재, 이재창, 홍영오. (2001). 사회적 오점보유자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 및 자존감에 관한 연구: 지체장애인과 윤락녀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7(1), 119-136.
- 심영희 (1995). 몸의 권리와 성관련법의 개선안: 권력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11, 72-109.
- 이석재, 최상진 (2001). 강간통념수용도에 따른 성행동, 성폭력 및 성폭행사건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97-116.
- 이호중 (2002).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성매매에 대한 담론과 형사정책의 담론 사이에서. *형사정책*, 14(2), 7-36.
-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1999). *십대여성의 향락산업 유입실태 및 방지대책연구*. 여성특별위원회 정책연구.
- 전북여성단체연합 (2002). *성매매에 대한 남성의식 토론회*.
- 정진경 (2002). 북한사람들의 성역할 특성과 가치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1(2), 163-178.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ampbell, B., Schellenberg, E. G., & Senn, C. Y. (1997). Evaluating measures of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1, 89-102.
- Farley, M. & Baral, I. (1998).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s.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ruen, L. & Panichas, G. E. (1997), *Sex morality and law*, Routledge, 110쪽.
- Helmreich, R. L., Spence, J. T., & Wilhelm, J. A. (1981). A psychometric analysis of the personal attributes questionnaire. *Sex Roles*, 7, 1097-1108.
- Lowman, J. (1985). *Prostitution Law Reform in Canada*. School of Criminology, Simon Fraser University
- Pettersson, E. (1999). 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Released by the Bureau of Democracy, human Rights, and Labor, U. S. Department of state, February 25, 2000, "Sweden : Activity report 1998-2000".
- Tong, R. (1984). *Women, sex and the law*. Totowa, NJ: Rowman & Allanheld.

Factors Constructing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 Prostitution

Jean-Kyung Chung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ye-Min Yang

Hanyang University

The study examined the factors constructing attitudes and intentions toward prostitution in Korean society today. The survey was carried out in 10 cities through Korea Women's Hotline branches, and 1815 women and men answered the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included items on attitudes, norms, intentions, and experiences on prostitution, and gender egalitarianism. Factor analysis on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revealed four factors: legitimacy, necessity, voluntarism and victimization. The attitude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for women and men, and for men with experience and no experience in prostitution. Men's intention for prostitution were found to be mostly determined by their personal attitudes than social norms, and was closely related to their prior experience. Gender egalitarianism was strongly related to the attitudes, intention, and behavior on prostitution. Men with higher egalitarianism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and intention toward prostitution, and also were less likely to have the experience.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suggestions for attitude change programs concerning the targets and the contents were presented.

Keywords: prostitution, attitude toward prostitution, intention, gender egalitarianism